보살승에 설한 '부처 되는길'

금강정경 (上)

경전 속의 禪 사상 43

글쓴이

정 태 혁
〈동국대 명예교수〉

대소승 모든 선관법 집대성한 경전
대승불교의 정수 오상성신관 제시

불교의 참된 도리는 계(戒), 정(定), 혜(慧), 삼학(三學)에 있다. 이 중에서 계가 없이는 정이 있을 수 없고, 정이 없이는 혜가 있을 수 없으니, 정을 닦는 선관이야말로 지혜를 얻어 부처가 되는 길이다.

그러므로 모든 불교경전은 부처의 지혜를 얻는 길을 설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도달되는 깨달음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불교의 모든 경전은 모두 지혜로써 진실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로 들어가는 길도 간곡히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설해지고 있는 수많은 관법(觀法)이다.

흔히 우리가 선법(禪法)이라고 하나, 불교의 선법과 외도들의 선법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 용어도 달라야하므로 같은 선법이면서도 외도의 선과 구별하여 불교에서는 관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의 관법은 선관(禪觀)의 방법이 된다.

관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선(dhāna)이라고만 할때에는 지(止 · samādhi/sthana)에 그치는 선이 되고 만다. 그러나 선관이라고 할때에는 '지'에서 관(觀 · upalaksana/vipasyana)으로 나아가서 '지'와 '관'이 하나가 되어 지관쌍운(之觀雙運)이 이루어진 것이 된다. 그러므로 불교의 모든 경론에서는 그냥 선이라고 하거나 모두 선과 관이 같이 있는 것이므로 불교의 선은 선관이고, 불교의 관에는 선과 관이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는 본질적으로 구별될 수 없는 것이지만, 시대적으로나 그 사유의 방향에 따라서 서로 구별하지만, 본래는 다를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승의 교리가 없이 대승의 교리가 따로 없고, 대승의 교리를 떠나서 소승의 교리로 따로 없다.

이와같이 선관법도 대승의 선관법이나 소승의 그것이 본절적으로는 다를 수가 없으며, 서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어느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것을 〈법화경〉에서는 회삼귀일(會三歸一)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대승인 반야경류에서 설하는 관법에 모든 소승경전의 선관법이 그대로 와 있고, 〈금강정경(金剛頂經)〉에서 설하는 관법에는 대 · 소승의 모든 선관법이 같이 와서 있게 된다.

그러나 소승은 소승의 세계가 있고, 대승은 대승의 세계가 있으며, 금강승은 금강승의 세계가 있으므로, 금강승의 세계를 설한 〈금강정경〉의 선관법에는 소승에서부터 대승으로 이어지는 관법만이 아니라, 〈금강정경〉 특유의 관법이 더해져서 설해지고 있다.

이제 〈금강정경〉에 나타난 관법을 소개함에 있어서, 먼저 불교의 가르침에서 선의 위치는 어떠한 것인가를 보았고 어떻게 다시 이것이 발전했는가를 생각해 보겠다.

이와같은 선관의 역사적 발전은 어찌하여 있게 된 것인가.

이것은 우리 중생의 근기의 차이에 따라서 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승경전에서는 성문승(聲聞乘)에 맞는 선이 설해졌고, 대승경전에서는 연각(緣覺)이나 보살승에 맞는 교설이 설해졌으며, 특히 〈금강정경〉과 같은 금강승에 속하는 경전에서 설해진 선관은 그대로 보살승에게 설해진 것이니, 부처가 되는 길, 곧 불신원만(佛身圓滿)이 이루어지는 선법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교경전에서 설해지고 있는 모든 선법은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설해진 것임을 알고, 자기자신의 수행에서 이것과 맞춰서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서 어느 한가지만에 매달리지 말고 구경(究竟)에 이르는 금강승의 선법에까지 도달되지 않으면 결코 성불할 수 없다고 말해질 수 있다.

이런 뜻에는 나는 〈금강정경〉에서 설해지고 있는 선관법인 '오상성신관'의 관법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겠다.

태국 나나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와지만 (24)

현대인의 불법 (3)

자비심으로 교화하라

증오 · 편견 버리고 이해 · 포용력 지녀야

참된 불교정신이 체질화된 사람은 종교적, 국가적, 정치적 편견이나 증오 따위란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전쟁 특히 도발적인 전쟁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강도나 살인자들이 너희 사지와 관절을 자른다 해서 화를 낸다면 너희들은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다음과 같이 자신을 단련해야 하느니라." 또 "우리의 정신은 평정을 지키리라. 우리의 입에서는 사악한 말이 한마디도 새어나오지 않으리.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해 호의와 연민으로 충만해 있고, 마음 속엔 아무런 원한도 묻어두지 않으리. 우리는 분노와 증오를 모르는 넓고, 깊고, 가없는 자비심으로 그들을 감화시키리라."

이렇게 모두를 감싸안는 자비심, 즉 '메따'는 한쪽 뺨을 맞았을 때 다른 쪽 뺨도 내밀어야하는 어린 양의 적극적이지 못한 사랑과는 그 성격이 사뭇 다르다.

"증오는 결코 증오로는 가라앉지 않고 오직 온화함으로만 가라앉는다." 불교는 한번도 총칼을 쓰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으로 파고들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부처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부처님의 이름으로든, 불교의 교리를 전파한다는 명목으로든 단 한방울의 피도 흘린 일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해탈을 증득함에 있어 무덕대고 믿는 신심이나 피상적인 종교의식은 아무 쓸모도 없다고 가르치 듯이 불교에서는 형식적인 개종이란 아무 의미도 없다. 그것은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목표에 가깝게 다가가는 길은 스스로 바른 견해를 갖추고 분발 정진하는데 있음을 잘 알고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불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덕성과 지혜를 갖추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바른 길을 알아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한마디 더하자면 이 보편적 자비심, '메따'는 초기 불교시대로부터 모든 불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왔다. 대표적인 불교국가인 미얀마에서는 전국의 주요 도로상에 지친 여행객을 위한 무료 쉼터를 만들었고, 목마른 자를 위해 항상 시원한 물이 담긴 물항아리를 놓아두었고, 사람과 동물 모두가 먹고 마실 음식을 마련하였으며, 병든 사람이나 동물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약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듯 불교는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보다도 우리의 성격과 태도를 향상시키고 고양시키는데 적합하다. 불교는 한 국민의 자존심과 책임감을 일깨워주고 그 나라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또한 인간 본연의 능력인,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힘에 호소하여 정신의 고양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국민들이 종교적, 국가적 편견을 떨쳐내고, 광신에 빠지지않게 함으로써 더욱 넓은 포용력을 가지게 해준다. 불교는 국민들 마음 속에 모두를 감싸안는 자비심과 형제애를 심어주어 증오심과 잔인성을 없애준다.

또한 불교는 술이나 약물 등을 금함으로써 국민이 늘 맑고 냉철한 정신을 유지하게 한다. 요컨대 불교는 인간의 모든 운명은 자신의 손에 달려있으며, 어떠한 신이나 부처님도 궁극의 목표에 데려다줄 수 없기에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기자신의 힘과 통찰력을 향상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줌으로써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불어넣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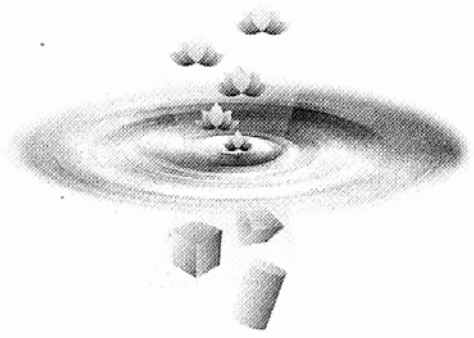
따라서 자기 존중의 태도, 자신감, 이해심, 너그러움, 모든 것을 감싸안는 자비심, 명정한 정신, 사고의 자주성 등이 불교의 영향을 받는 국민들 사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점들이다.

이러한 장점들이 널리 자리잡고 있는 나라에서는 평화와 행복이 충만할 것이다. 그러한 나라야말로 전세계가 바라마지 않는 모범국가가 될 것이고 바로 지상의 낙원이 될 것이다. 현대인의 도리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과 학 산 책

W · Z보존(boson)



무거운 W · Z 보존입자
낮은에너지 상태에선
전자와 같은 성질 지녀

전통적인 입자와 힘의 개념은 대립이 아니라 보즈장(場)으로 통일되고 오로지 장(場)만이 존재한다. 전통적인 힘의 역할을 하는 것은 가상 모드 상태로 관찰되어지는 보즈입자이다. 진공 상태에서 무거운 장(場)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결과 무거운 입자를 얻기 위해서는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방정식 E = Mc2에 의한 양만큼의 많은 에너지가 요구된다. 일상적인 온도와 거리에서는 무거운 양자장을 자극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에너지가 없다.

일상적인 시공간 단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입자는 중성자와 양성자이다. 약한 전자기 통일 이론에 따르면 이들보다 100배나 무거운 W와 Z 보존(boson)이 존재한다. 무거운 질량 때문에 이들 입자들은 자극되기에 충분한 에너지가 없는 일상적인 시공간 단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장들은 양자 법칙의 결과로 인해 자연 법칙이 더욱 생동적인, 더욱 섬세한 시공간 단위에서 계속 동작한다. 이 더욱 근본적인 단위에서는 전자와 중성미자 사이의 대칭이 회복된다. 즉, 전자와 중성미자는 심오하게 꼭 같아 이들은 단지 하나의 통일된 양자장의 두 구별되지 않는 모습이 된다. 빅뱅 후에 충분한 에너지가 있던 시간에는 무거운 W와 Z 보존에 의해 통일성이 유지되다가 우주가 확장되어 무거운 W와 Z 보존 장이 기능을 멈출 정도로 차가워지면서 전자와 중성미자, 위 쿼크와 아래 쿼크는 서로 다른 물리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빅뱅이 있은 후 처음 100만 분의 1초 동안에 W · Z 보존들은 우리 우주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전자와 중성미자 등은 구별되지 않으며 전자기적 상호작용과 약한 상호작용은 통일된다.

그 때 세상은 훨씬 간단했다.

그라쇼-사람-와인버그에 의해 제안된 약한 상호작용과 전자기적 상호작용을 통합한 모델이 뛰어난 성공을 얻게 되어 물리학은 자연에 깊이 숨겨져 있는 대칭성을 바탕으로 통일이란 주제를 확립시켜 나가고 있다.

이 약한전자기 이론에 의하면 전자와 중성미자, 위 쿼크와 아래 쿼크 등은 근본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분별할 수 없음을 지탱하고 있는 W · Z 보존은 매우 무거워 일상적인 시간과 거리 단위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 그 결과 대칭 파괴(symmetry breaking)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전자와 중성미자등은 겉보기에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된다.

약한 전자기 이론에 의하면 W · Z 보존은 일단 생겨나면 전자기장과 결합하여 '약한전자기력'이라 불리는 힘을 이룬다. 그래서 '약한전자기 통일'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동시에 전자와 중성미자 등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성질을 갖게 되어 통일된다.

오늘날에도 빅뱅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단순성과 통일성을 더 근본적인 시간과 거리 단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 2개의 산란과 중성미자 두 개의 산란을 비교해보자. 전자들은 전하를 가졌으므로 전자기 장의 특성에 의해 산란한다. 반면에 중성미자는 전하를 가지지 않았다. 중성미자는 오로지 무거운 Z 장(場)의 특성에 의해 산란되어진다.

만약 충돌전과 후의 전자와 중성미자가 전형적인 실험실 수준의 낮은 에너지를 가진다면 전자는 중성미자보다 훨씬 쉽게 산란할 것이다. 이는 전자기장이 질량이 없어 그 결과 다가오는 전자들에 의해 쉽게 흥분되기 때문이다. Z 보존이 Mc2의 에너지를 가진 물리적인 입자라면 일상적인 실험실 에너지 수준에서는 충분한 에너지가 없어 중성미자 산란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Z 보존이 가상입자라면 이보다 훨씬 낮은 에너지에도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저에너지 수준에서도 중성미자 산란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작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조원희 〈본사 전략정보실장〉

이제는 집에서도 온 가족이 손쉽게 법회를!

가정법회

모든 불자들을 위한 가정법회 안내서

삼귀의 · 반야심경 봉독 · 5계 수지문 낭독 ·
찬불가 · 성구 및 해설 · 발원문 · 사홍서원

신행활동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삶의 지침이 되고 교훈이 될만한 내용을 아함부경전에서 가려뽑은 성구와 그 의미를 드러내주는 해설,
축원이나 감사는 물론 각종 행사나 절기 등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작성된 발원문,
온 가족이 날짜나 요일을 정해놓고 혹은 특별한 날에 가정법회를 진행한다면 훌륭한 불자가정은 물론 삶의 지혜와 교훈,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학종 편저/신국판/350쪽/값 10,000원

중국과 대만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선화총서 첫 번째 권

불교와 유학

불교와 유교, 동아시아 사상계의 가장 큰 충돌,
그리고 중국화된 불교와 불교화된 유교!

불교와 유학은 장구한 역사 속에서 상호간의 투쟁, 배척, 흡수, 융합 등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책은 바로 이 양자의 관계를 정확한 관점과 명쾌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와 중국에서 발원한 유학이 갖는 각각의 특징, 불교의 중국화 과정에 유학이 미친 영향, 역으로 중국의 유학에 불교가 끼친 영향, 그리고 이러한 영향들의 결과 및 의의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賴永海 저 · 김진무 역/신국판/363쪽/값 12,000원

알기쉬운

한문해석법

현대 한문해석법의 완성과 반야심경에 대한
최초의 문법적 분석

불교경전 번역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이 책은 한문의 기초부터 한시는 물론 허사에 이르기까지 한문해석을 위한 한문 문장의 구조와 문법을 총정리한 초보자를 위한 한문입문서이다. 특히 반야심경을 현대의 한문해석법에 문법적으로 적용하여 국내 최초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장분석과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심재동 저/신국판/383쪽/값 12,000원

初發心自警文

누구나 쉽게 공부할수 있게 꾸민
초심자를 위한 안내서

번역 및 자해난은 물론 원문에 토를 달고,
원문 해석의 순서와 방점을 붙여 누구나
쉽게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혜공 편역/신국판/136쪽/값 4,500원

1999년도
불교서적
종합목록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불교서적을
총망라한 국내 유일의 종합정보지.

전 서적에 대한 내용별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전체목록 색인란과 출판사별 색인란을 두어
목록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가까운 불교서점에 가시거나 운주사로 연락주시면
(우편발송비 2,000원 동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전화 : 3672-7181~5 팩스 : 3672-7186